

고유가에 농식품 구매 부담 커져...“할인·특가 상품 구매 늘어”

- 농촌진흥청, 수도권 소비자패널 1,000명 대상 조사
- 10명 중 8명 가게 지출 부담 체감
-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51.9%, 본인 비용 더해 추가 소비 의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비자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게 지출 부담과 농식품 구매 행태 변화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 유형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고유가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게 지출 및 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제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5%였으며, 지출을 줄인 주요 항목은 교통·에너지비와 외식·배달비로 조사됐다.

농식품 구매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는 농식품 구매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 이후 외식·배달을 줄이고 가정 내 조리를 늘렸다는 응답은 67.3%였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할인·특가 상품을 구매(34.1%)하거나, 필요한 양만 구매(27.4%), 다른 품목으로 대체(17.0%)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로 농식품(39.5%), 생활필수품(19.0%), 외식·배달비(17.4%), 교통·에너지비(15.5%)에 사용하고, 피해지원금의 평균 54.1%를 농식품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급 대상자의 48.0%는 피해지원금 수령 시 평소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농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급 대상자의 51.9%는 지원금에 본인 비용을 더해 추가 소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피해지원금이 추가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원금 사용계획 비목에 따라 농식품 품목별 구매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원금을 농식품이나 외식·배달비로 사용하겠다는 소비자는 과일·과채(31.8%), 육류(30.8%) 구매 의향이 뚜렷했다. 생활필수품이나 교통·에너지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농식품 구매를 줄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미 수급자는 과일·과채류와 육류를 중심으로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농업경영혁신과장은 “외식 감소, 가정 내 조리 증가 등 소비 유형 변화를 고려한 품종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수확 품종 개발을 확대하겠다.”라며 “가공·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에 적합한 농산물 재배 기술과 저장·품질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식품 수요 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농식품 소비 행태 분석 결과

담당 부서	기술협력국	책임자	과 장	위태석 (063-238-1190)
	농업경영혁신과	담당자	연구사	이유진 (063-238-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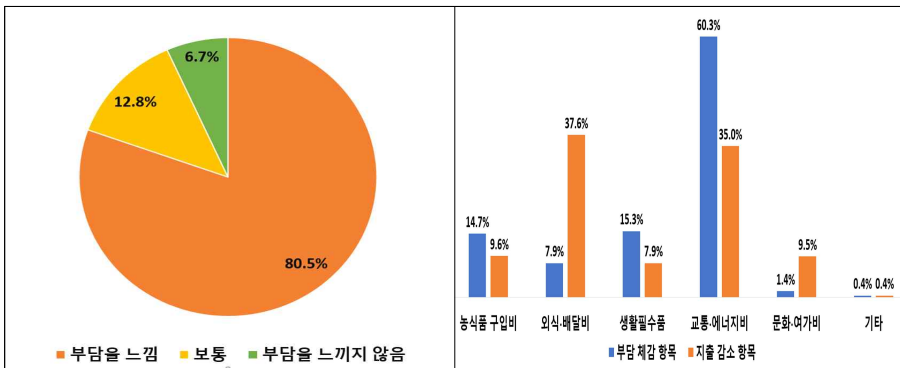
I. 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 고유가로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가계 지출에 부담 체감

- (소비부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및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가계 지출 및 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그림 1)
 - * 부담을 느낌(매우~그런 편) 80.5%, 보통 12.8, 부담을 느끼지 않음(전혀~그렇지 않은 편) 6.7
- (부담항목)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은 ①교통·에너지비(60.3%), ②생활필수품(15.3), ③농식품 구입비(14.7) 순으로 조사됨(그림 2)
- (실제경험)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5.5%로 나타남
 - 지출을 줄인 항목은 외식·배달비(37.6%)와 교통·에너지비(35.0) 중심
 - * 연령대별 지출 감소 경험 유: 30대 이하 61.7%, 40대 68.6, 50대 67.6, 60대 이상 62.6

<그림 1> 소비 부담 비중

<그림 2> 부담 체감과 실제 지출 감소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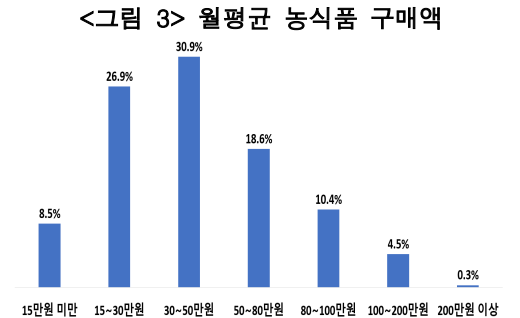


- (농식품·생활필수품) 농식품 및 생활필수품 구입비는 부담을 느끼는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두 항목이 필수 소비재 성격인 것에 기인함

II. 고유가에 따른 농식품 구매 변화

◇ 농식품 구매 부담으로 가정 내 조리가 늘고, 할인·특가 중심 구매로 변화

- (농식품 부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및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 응답자의 73.6%가 농식품 구매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 농식품 한정 질의
- 월평균 농식품 구매액은 48.4 만원
 - <그림 3> 월평균 농식품 구매액
 - ※ ① 30~50 만원(30.9%), ② 15~30 만원(26.9%), ③ 50~80 만원(18.6%), ④ 80~100 만원(10.4%) 순



- (외식·간편요리)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외식·배달 이용을 줄이고 가정 내 조리를 늘렸다는 응답은 67.3%로 나타남
 - <표 1> 외식·배달 및 직접요리 변화

구분	외식·배달·포장(%)	HMR 등 가정 내 간편 조리	가정 내 전 과정 직접 조리
중동전쟁 이전	33.9	23.9	42.2
중동전쟁 이후	22.4 (11.5%p ↓)	23.4 (0.5%p ↓)	54.2 (12.0%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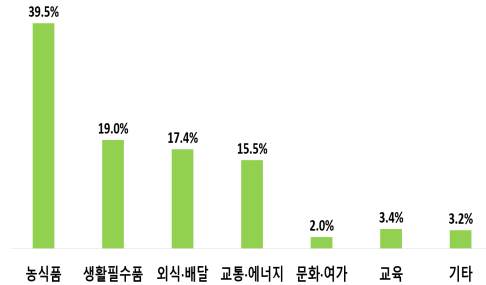
- (행동 변화) 중동전쟁 이후 동일 품목에서 ‘할인·특가 상품을 구매했다(34.1%)’가 가장 높아 물가부담에 따른 구매행동 변화가 나타남
 - 다음으로 ② 필요한 양만 구매(27.4%), ③ 다른 품목으로 대체(17.0) 등 순
 - * 다른 품목 대체 시에는 ‘가격 부담이 낮은 식품군’으로 이동 68.4% 응답
- (향후 소비) 중동전쟁이 지속될 경우 농식품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9.8%로 높은 편이며, 감소 품목은 과일, 육류 순
 - 구매 감소 예상 품목은 ① 과일·과채류(33.2%) > ② 육류(26.1) > ③ 가공식품(23.6) 등의 순으로 응답

Ⅲ.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

◇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농식품 구매 확대

- (사용계획) 지급 대상자는 피해지원금을 ① 농식품 (39.5%), ② 생활필수품 (19.0), ③ 외식·배달비 (17.4), ④ 교통·에너지 (15.5)에 사용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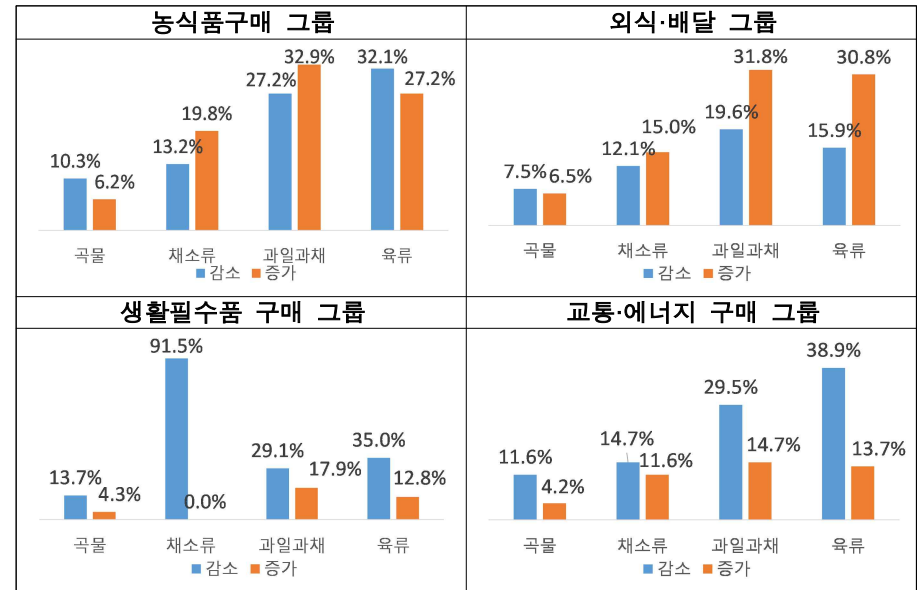
<그림 4> 피해지원금 사용 계획



- 지급 대상자의 48.0%는 피해지원금 수령 시 평소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농식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함
- (추가소비) 지급 대상자의 51.9%는 지원금에 본인 비용을 더해 추가로 소비할 의향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됨
- (농식품 구매액) 농식품 구매 예정자는 지원금의 54.1%를 사용할 계획
- (정책수요) 고물가 상황에서 농식품 소비를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농산물 가격 관리(50.9%)'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②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16.3%), ③ 농식품 구매 할인 지원(15.8), ④ 유통 단계 축소(12.6)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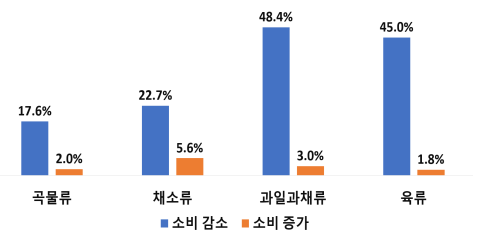
- (수급자 소비의향) 지원금 주 소비 계획 비목(농식품, 외식·배달비 등)에 따라 농식품 품목별 구매 의향에 큰 차이가 남
 - (농식품구매 그룹) 육류, 과일·과채의 구매증가 및 감소 비율이 혼재
 - (외식·배달 그룹) 육류(30.8%), 과일·과채(31.8)의 구입 증가 뚜렷함
 - (생활필수품 그룹) 채소류(91.5%), 육류(35.0), 과일·과채(29.1) 등 구매 감소
 - (교통·에너지 그룹) 육류(38.9%), 과일·과채(29.5), 채소류(14.7) 등 구매 감소비율이 구매 증가 비율을 상회함

<그림 5> 그룹별 농식품 구매의향 차이



- (미수급자)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식품 구매 감소 비율 높음
 - ① 과일·과채류(48.4%), ② 육류(45.0), ③ 채소류(22.7), ④ 곡물류(17.8) 감소

<그림 6> 미수급자 농식품 구매의향



IV. 요약 및 시사점

- 고유가로 가구의 교통·에너지비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실제 지출을 줄인 항목도 외식·배달비와 교통·에너지비 중심으로 나타남
 - 농식품 구입비는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지출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식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소비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식·배달을 줄이고 가정 내 조리를 늘리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식사 방식이 가정 내 조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남
- 지원금 사용 계획 비목에 따라 농식품 품목별 구매 의향에 차이가 나타남
- 지급 대상자는 농식품과 생활필수품 구입에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일부는 지원금에 본인 비용을 더해 추가로 소비할 의향을 보임

- ⇒ **(품종 개발)** 가정 내 조리 및 간편조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가공 밀키트 활용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농식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수량성이 높은 다수확 품종 개발 확대
- ⇒ **(재배 기술)** 신선 소비용, 가공용 등 활용 목적별 품질·규격·수량 특성을 고려한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수요 변화에 대응
- ⇒ **(기술 개발)** 밀키트, 전처리 농산물 등 간편조리용 농식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저장성 향상, 신선도 유지 등 저장·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